

병원탐방

\* 카톨릭병원 물리치료실 \*

대구시 대명동 산 중턱 짙 자리잡고, 안개가 햇살을 가리는 두류산 공원을 여유있게 바라보고 있는 이곳이 카톨릭병원.

5년의 역사를 가진 친절하고 깨끗한 병원으로 알려진 곳이다.

병원을 들어서니 맨 먼저 성모상의 자애로움이 이방인을 맞이하고 있었고 웬지모를 기쁨을 주었다.

타박 타박 걸어서 건물 3층으로 올라갔다.

노크를 하고 문을 배시시 열었을 때, 맑은 빛 출기가 치료실 안을 비쳐 주었고, 전에 있던 곳에서 새 건물로 이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인지, 거기 계시는 두분 치료 선생님 얼굴만큼이나 깨끗하고 화사한 분위기였다.

두분 선생님과 보조하는 분들의 바쁜 걸음거리가 살아있음과 재활의 자극을 느끼게 한다.

Tilting Table에 선 Hemiplegia 환자는 열심히 OT를 하고 있었고, 조금 후, 잠시의 시간을 가졌을 때 펜스레 웃음이 흘렀다.

마음 속으로 서로의 수고스러움을 자위하는 것일까?

아름든 우리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물리치료실은 전인치료실, 전기치료실 및 광선치료실, 수치료실, 운동치료실 및 작업치료실로 나뉘어져 있었다.

수치료실에는 3대의 whirl pool이 “도레미” 순으로 치료부위에 맞게 갖추어져 있었고, 곧, 하버드 탱크가 들어 온다며 은근히 귀뜸을 한다.

장갑을 만든다며 paraffin bath가 붐비고, 때 아닌 설인의 손이 등장하기도 한다.

전기치료실에는 각 part별 환자들로 기구가 숨쉴 겨를도 없이 움직이고, EST 대응으로 Faradic Current 만을 이용한 저주파가 눈에 뜨인다.

운동치료실의 Treat mirror에는 환자 한 분이 서서 체형교정과 더불어, 살짝 비뚤어진 몸매를 자랑스레(?) 가끔 보이실 때면, 거기있던 다른 환자분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파안대소를 하게 한다며 회상하시는 듯.

그리고 아직은 작업치료 선생님을 따로 두지 못한 형편 이어서, 두 선생님께서 환자에 맞는 OT를 병행하신다고 한다—

4시쯤, 치료 시간이 끝나면 잠깐 coffee time. 30분 뒤엔 meeting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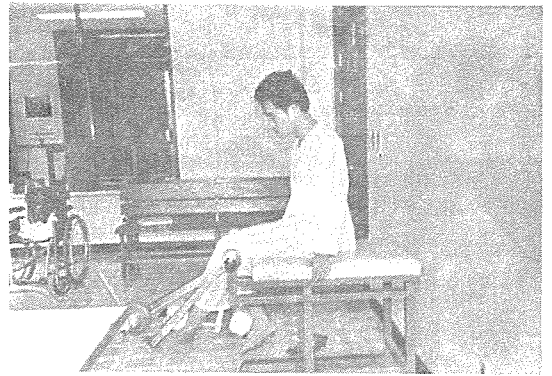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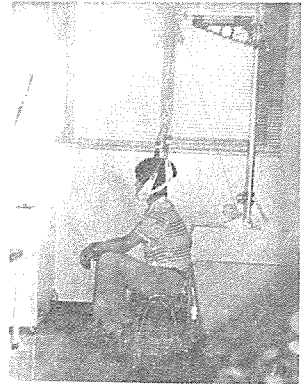
여기선 각 Case 별 Conference와 그날 하루 치료한 환자 다 문제점의 토론으로 시작과 끝을 맺는데 스스로의 발전과 환자들을 위한 ‘좋은 치료’가 된다며 유익함을 힘주어 얘기하신다.

잠시 말머리를 치료 선생님쪽으로 돌렸다.

처음, 이현경先生. 주민先生에 이어, 현재의 김경애先生(면허번호 829번). 이석순先生(면허번호 900번) 으로 이르고 있다.

완전히 section 별로 치료 선생님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로 힘이 좀 더 든다며, 그래도 환자들이 나아서 나갈 때면 피곤도 잊어진다고...

이곳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얘기하시는 두분 선생님의 진한 모습을 뒤로하고, 문을 나서니 오후 늦게부터 내리던 비가, 치료실에 있을때는 있으라고 “이슬비” 같았는데, 병원을 나오니 잘가라고 “가랑비” 같아 보인다. 해해



김先生님

김 선 희

바닷물에 머리빗은 저 고운 모래발길

두 미간 가로짓 듯 그렇게 빗어간다.

어둠을 사랑한 듯 질고 열은 그 모습이

파도를 불러들여 仁의 맘을 사로잡네.

그 모습 그 자태가 그리어찌 고운웬가

동백향 머리기를 물결속에 펼치움고

하늘녘 낙조속에 젖은머리 말리운다.